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 포 시	배 포 일시	2021. 6. 17.(목) 08: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심규진 (044-215-2750)	담당자	손정혁 사무관 (f15strike@korea.kr) 이유진 사무관 (caogugoa@korea.kr)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김동익 (044-215-4710)		이용준 사무관 (cjeye86@korea.kr)
	기획재정부 국채과장 박재진 (044-215-5130)		김지수 사무관 (jsarah13@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이수영 (02-2100-2850)		이지호 사무관 (jiho88@korea.kr)
	한국은행 안정총괄팀장 이민규 (02-750-6834)		정천수 과 장 (csjung@bok.or.kr)
	금융감독원 거시총괄팀장 김성욱 (02-3145-8172)		송하균 선임조사역 (larrysong@fss.or.kr)
	국제금융센터 리스크분석본부장 정형민 (02-3705-6130)		황재철 부전문위원 (jchwang@kcif.or.kr)

제목: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17일(목) 08:00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
-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합니다.

※ (별첨) 이억원 제1차관 모두발언

【 개최배경 】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19년, '20년 '21년 1분기 성장률이 모두 상향조정되는 트리플 레벨업을 달성한 가운데¹⁾ 4~5월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60만명을 상회하는 등 예상보다 강하고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²⁾

지난주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을 상회하는 5%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6.10일), 일시적 급등이라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美 고용지표의 회복세도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외 경제가 위기에서 회복으로 큰 방향이 바뀌는 전환기임을 감안할 때, 향후 국내외 인플레이션 상황과 美연준·ECB 등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 등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금일 발표된 美 FOMC 결과를 살펴보고 대응방향을 점검합니다.

1) 경제성장률(한국은행) '19년 2.2%(+0.2%p), '20년 -0.9%(+0.1%p), '21.1/4분기 1.7%(+0.1%p)

2) 韓 國채금리(10년물 % 기말) : ('20.12)1.713 ('21.1)1.768 (2)1.960 (3)2.057 (4)2.128 (5)2.179 (6.16)2.070
KOSPI(pt, 기말) : ('20.12)2,873 ('21.1)2,976 (2)3,013 (3)3,061 (4)3,147 (5)3,204 (6.16)3279

【 美 FOMC 결과 및 평가 】

간밤 연준은 기준금리를 0.00~0.25%로 동결하고,
현재의 양적완화(月 최소 \$1,200억불)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완전고용과 평균 2% 인플레이 목표
달성시까지 現 수준의 완화적 기조를
지속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에 따른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 개선 등으로
경제활동과 고용지표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다소 큰 폭으로 상향조정³⁾했습니다.

시장에서 포워드 가이드스로 주목했던
금리전망 점도표(Dot plot)에서도
향후 금리인상을 예상한 위원 수가 증가⁴⁾하면서,
기존의 '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전망이
'23년 2회 금리인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 전환에 필요한 경제·고용 지표의
상당한 추가 진전(Substantial further progress)은
아직 거리가 멀고,
인플레도 예상보다 높지만 일시적 요인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점도표 상 금리인상 시기는 연준 위원들의 개인적인 예상일 뿐
연준 자체의 계획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경제전망('21.3월 → '21.6월, %) : <성장률> ('21)6.5 → 7.0 ('22)3.3 → 3.3 ('23)2.2 → 2.4
<PCE 인플레이션> ('21)2.4 → 3.4 ('22)2.0 → 2.1 ('23)2.1 → 2.2
<실업률> ('21)4.5 → 4.5 ('22)3.9 → 3.8 ('23)3.5 → 3.5

4) 점도표 중위값('21.3월 → '21.6월, %) : ('21~'22)0.0~0.25 → 0.0~0.25 ('23)0.0~0.25 → 0.50~0.75
전체 18명 중 인상전망 위원수('21.3월 → '21.6월, 명) : ('21)0 → 0 ('22)4 → 7 ('23)7 → 13

한편, 연준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과의
통화스왑 만료시점을
오는 9월 말에서 12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연준의 신중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되며,
글로벌 경제의 전환기에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포워드 가이드스 변화 등이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주가 하락,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등
위험회피 현상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장이 예상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인식으로,
변동폭은 비교적 제한된 모습입니다.

※ 美 다우 △0.8% 하락, 美 10년물 국채금리 +8bp 상승, 달러화 +0.9% 강세

금번 FOMC 결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도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겠으나,

우리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냉철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❶ 무엇보다 실물 경제의 회복세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국보다 빠르게
성장률, 고용 등이 강한 반등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6.1~10일 수출도 전월에 이어 전년동기대비 40%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②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도 전고합니다.

대외신인도의 대표적 지표인 CDS 프리미엄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18bp) 유지하고 있으며,
S&P·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 기관도
팬데믹 과정에서 우리경제가 보여준
뛰어난 회복력을 높게 평가하며
사상 최고수준의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③유사시 우리정부의 대응여력도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1.5월 기준 4,564.6억불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
팬데믹 과정에서 환매조건부 방식
외화유동성 공급망 구축('20.9월) 등
새로운 시장안정 수단을 확충했을 뿐 아니라,
이번에 韓美 통화스왑이 연장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강한 시장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정부 대응방향 】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동향과 경기회복의 속도,
7월 美 FOMC(7.29일), 잭슨홀 미팅(8.27일)과 같은
주요 통화당국의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및 외환건전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물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가
어려움을 겪는 업종, 계층으로까지 파급되어
포용적 회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노력들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이연된 소비지출의 활성화, 투자와 수출활력 보강,
고용의 빠른 회복을 위한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추경(안)에 담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美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테이퍼링 가능성 등
최근 거론되는 리스크 요인들과 관련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 충격을 유발했던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급작스런 테이퍼링과는 달리

세계 경제가 이미 경험한 바 있고,
美 연준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함에 따라
그간 충분히 예측되고 적응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될 경우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파급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관제기관,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잠재적 위험 요인들과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경제의 회복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의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 우선 적용,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 제한 등